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al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2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추위가 뺨에 사무치지 않으면
매화 향기 어찌 얻으랴

2. 법정 스님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만남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참선의 마음가짐

4. 법정 스님 잔소리 지금 주라, 지금 곧 주라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2

6. 불일암 구석구석 불일암 아래채 부엌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작은 노래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실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 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2월 1일 발행, 통권 312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71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매화 향기 어찌 얻으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절에서 마음 닦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닦습니까? 마음이 눈에 보이면 손으로 문지르거나 걸레로 훑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닦는다는 말은 매우 관념적이고 모호한 표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이 곧 수행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삶이 꽃피어 날 수도 있고 껍막힌 벽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 첫머리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가령 우리가 생각이 뒤틀려서 가시 돌친 말을 친구에게 던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친구에게 가닿기 전에 내 마음에 가시가 박힙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실체를 따르듯이

이 역시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각자 자기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을 냉혹하고 매정하게 쓸 수도 있고 봄바람처럼 훈훈하고 너그럽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참마음인가는 우리 각자가 느끼면 압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그것은 나의 본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고 무엇인가 개운치 않다면 내 본마음이 아닙니다.

수행은 어렵게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외기 전에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마음을 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입장과 자기 본위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내 마음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자 대상입니다. 어디에도 걸림 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건도 대하고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마음을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스스로 주시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바르게 써야 바르게 닦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빛이 납니다.

친구를 통해서, 혹은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몇 생에 걸쳐 가족을 이룰 인연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가족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지내는 가족도 있지만 원수 보듯 서로 미워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중생계의 구조입니다. 마지못해 '싫어, 싫어' 하며 투덜대고 어떤 대상을 미워하며 살게 되면 나 자신이 미워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애를 그렇게 소모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지극히 관념적인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부처나 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부처나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처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을 부처나 보살로 대해야만 우리의 업이 녹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처럼 대하면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 어디선가 또다시 원수가 되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진리의 세계를 만난 것은 묵은 업을 청산하고 보다 새롭고 밝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갑니다. 화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화를 잔뜩 내면 스스로가 독의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전생에 남을 힘들게 한 과보를 이번 생에 받고 있구나'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까닭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사소한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마음을 돌이켜 풀어 버리면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고리입니다.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인과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마음을 좋은 쪽으로 써야 합니다. 혹시 맺히거나 굳게 닫힌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오늘 해제일을 계기로 다 풀어 버리기 바랍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팎으로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구애되거나 기죽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바뀔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할 때, '나를 깨우치기 위해 내가 가까이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속지 말고 안으로 거두어들 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와 보살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수행이 쌓이고 쌓이면 스스로가 부처와 보살이 됩니다. 우리가 절에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자비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송한 사람이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힘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기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활짝 꽃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쓰는 일이고 마음 닦는 일입니다. 황벽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차례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코를 찌를 매화 향기

어찌 얻으랴.

각자 삶의 현장에서 화창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풀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삶이 향기로워집니다.

(법정 스님 2006년 2월 길상사 법문을 시절에 맞게 정리해 올립니다.)

2. 법정 스님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2월 선물은 '만남'입니다. 법정 스님이 오늘을 위해 1980년대에 써 두신 글입니다. '만남'에 대한 스님의 글은 몇 가지 출판되었지만 이 글은 이번에 처음 선보입니다.

만남

만남은 그 이전에 반드시 인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물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물음이 없는 만남은 한낱 사교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는 즐거움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한결 같이 꿰뚫는 것이 없다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만남을 원한다면 탐구하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은 반드시 만남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것이 친구이건, 책이건, 스승이건, 과거의 인물이건, 현재의 인물이건 마찬가지다. 인간은 만남으로써 눈뜸이 시작되고 눈뜸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또 정신의 나이가 쌓여 간다. 인간의 만남에는 이별과 실망이 준비되어 있다. 마치 과일 속에 씨가 들어 있듯이.

또한 만남에는 반드시 감사와 감동이 따른다. 만남의 감동은 나를 내던지게 한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온몸이 떨릴 만큼 뛰어난 예술품을 보았을 때 감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모방하려 한다. 즉, 자기를 버리고 따르려고 한다. 이때 개성을 얻으려고 하면 개성을 잃고 개성을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개성을 얻는다. 스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스승의 자취를 따르고 그 스승의 말이나 행동을 모방한다.

글씨까지 닮는다. 이렇게 인간은 모방을 통해 만들어진다. 자기가 존경하고 심취할 인물 - 그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 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장한 뒤 그를 부정하고 극복하게 될지라도, 자기 소멸의 훈련은 그 사람의 배경으로 남는다.

만남과 자기 버림, 여기에 비로소 거듭남이 일어난다. 사람은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것만으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동물적인 연명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으로서 정신적인 연명을 얻으려면 인간은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신(轉身)이란, 재생(再生)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눈뜸, 곧 개안(開眼)이다. 눈뜸이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임이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림이다. 사는 기쁨과 감사를 순간순간 확인한다.

만남을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넓고 쉬운 길이다. 그때 만나는 저자는 나의 스승이 된다. 《예언자》의 저자인 칼릴 지브란, 《자서전》의 저자인 마하트마 간디, 《장 크리스토프》의 저자 로맹 롤랑은 내가 이렇게 만난 나의 스승들이다. 하나 더, 만남에는 출가 정신이 필요하다. 자신이 찾아 나서야 한다. 거듭거듭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만난 것 가운데 아닌 것은 선뜻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본질적인 자와 마주칠 때까지 찾고 버리고 다시 찾아 나서야 한다.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한다.

네 벗은 네 요구가 응답된 것이다. 그는 네가 사랑으로 심고 고마움으로 거둬들이는 네 밭이다. 네 벗이 자기 마음을 너에게 이야기할 때, 네 마음속으로 '아니' 하기를 두려워 말며, '그렇다' 하기를 꺼리지 말라. 또 그가 잠잠할 때에는 네 마음은 그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를 쉬지 않는다. 벗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모든 생각, 모든 소원, 모든 기대가 소리 없는 기쁨으로 서로 주고받아지는 것이다. 벗을 떠날 때는 너

무 슬퍼 마라. 산이, 올라가는 사람의 눈에는 저 들에서 볼 때보다 더 분명하듯이, 사랑하는 벗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은 그가 없을 때에 더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벗을 사귀에는, 정신을 깊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두지 말라. 사랑 자체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 말고, 또 다른 무엇을 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그물 던짐이다. 시간을 없애기 위해 찾는다면 벗이랄 게 무엇이냐? 언제나 시간을 살리기 위해 그를 찾으라. 그는 네 부족을 채우는 것이지, 결코 너의 텅 빈 것을 채우자는 것이 아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지난달에는 좌선의 요령, 곧 좌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몸가짐에서 시작해 장소와 좌복 사용법, 그리고 호흡에 이르기까지 좌선에 필요한 물리적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달의 따라하기는 ‘참선의 마음가짐’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2021년 2월호에 그 내용을 신습니다. 법정 스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선하였을까요? 의심과 용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어 보고 따라 해 볼까요?

참선의 마음가짐

참선에는 큰 의심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종파적인 견해를 떠나 초심자들이 지녀야 할 정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당초 의문이 없는 사람은 풀어야 할 문제가 없기 때

문입니다. 의문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참선에 입문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선 의심하세요. 참선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심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1.

문/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답/뜰 앞의 잣나무다.

문/스님, 잣나무를 물은 게 아닙니다.

답/나도 잣나무 얘기한 것 아닐세.

문/어떤 것이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답/뜰 앞의 잣나무다.

2.

문/무엇이 저 자신의 본래 모습입니까?

답/자네도 저 잣나무가 보이냐?

3.

문/개에게 물론 불성이 있겠지요?

답/없어.

문/부처님부터 벌레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답/자네 업식의 본성에나 있겠지.

오랫동안 화두는 의심을 키우는 선의 주제였고 공안은 화두를 결택하는 중심 과제였습니다. 말 바깥의 소식을 따로 전하는 전승의 전통을 확립한 대승선은 화두나 공안에 의해 방대한 선의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임제 선사에게서 선택이 지니는 전정한 용기의 훌륭한 모범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선사가 말했다. 형제들이여, 법을 위해서는 몸이 헐고 목숨이 가는 것을 피하지 말라. 이십 년 전, 황벽 선사를 모시고 살 때, 세 번이나 무엇이 불법의 밝고 밝은 큰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가 세 번이나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지금 생각하니 그 일은 마치 향기 나는 풀로 쓰다듬어 주신 것과 같다. 다시 생각하니 한차례 몽둥이를 맞고 싶다. 그러나 뉘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해주랴?” 《임제록》
임제는 고향지르기의 명수였지만 그의 가풍은 치밀하고 치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사가 말했다. 존재하는 것은 그대로 완전하다. 그러한 인식으로 볼 때, 그렇다 하면 빠지기 쉽고, 그렇지 않다 하면 스스로 묶인 결과가 된다. 전 시간을 통해 어지러운 판단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다’, ‘모른다’하는 것은 하나 같이 착각의 수준이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천하 사람들이여, 어디 비평해 보라.” 《임제록》

그는 언제나 ‘바로 오늘이다, 내일이 있을 수 없다’는 생활 태도를 지켰습니다. 출가의 정신이야말로 하루에 황금 만냥을 쓰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순간 법계의 혼을 지녀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에게 설법하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에게 설법하고 아귀를 만나면 아귀에게 설법하는 교화중생의 일념과 만법일여의 태도를 지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도 참선할 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4. 법정 스님 잔소리

게으르고 눈 어둔 불자들을 깨우고 다그치는 스님 말씀, 그 잔소리가 이제는 그림습니다. 오늘은 보시에 대한 잔소립니다. ‘베풀었다’며 우쭐해지는 우리의 우둔을 보시며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일찍이 《보적경가섭품(寶積經迦葉品)》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2021년 2월호에 처음 선보이는 미발표 원고입니다. 스님의 잔소리, 함께 들어 볼까요?

지금 주라, 지금 곧 주라

네가 가진 것에서 줄 때 그것은 주었다 할 수 없다.
참으로 주는 것은 너 자신을 주는 때다.
대체 네 소유란 무엇이나?
내일의 필요를 걱정하여 아끼고 지키고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모자랄까 봐 걱정함이 곧 모자람이다.
집 안에 샘물이 그득 차 있는데도 목마를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 갈증은 영원히 채울 길이 없으리라.
이것이 허욕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이가 있다. 그에겐 그 즐거움이 곧 그 값음이다. 싫은 마음으로 주는 이가 있다. 그에겐 그 싫은 마음이 곧 그 값음이다.
주면서도 싫어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덕으로 여기는 생각조차 없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보시는 마치 저 건너 골짜기의 꽃이 공중을 향해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

뒤에서 하느님은 땅을 향해 빙긋이 웃으신다.

청함을 받고 주는 것이 좋지만 청함을 받기 전에 알아서 주는 것이 더욱 좋다.

네가 아낄 만한 것이 무엇이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떤 날에 가서는 다 주어지고 말 것을.

그러므로 주라. 지금 곧 주라. 때를 놓쳐 뒷사람의 것이 되게 하지 말라.

너는 특하면 “주고는 싶지만 주어서 보람이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다.

과수원의 나무는 그런 소리하지 않고, 목장의 짐승들도 그러지 않는다. 저들은 제가 살려고 주는 것이다.

그러고 받는 자들아, 인생은 다 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신세 진다고 생각을 말라.

그리 생각하면 너와 너에게 주는 사람에게 멍에를 씌움이 된다.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2

오늘은 우리가 선지식 여행을 함께할 동반자, 곧 도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람들은 그를 선재동자라 부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세상에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여 선근(善根), 착한 뿌리를 많이 심었고, 믿고 이해함이 커서 여러 선지식을 두루 찾아 항상 가까이 섬기기를 좋아했으며, 행동과 말과 생각에 허물이 없고, 보살의 도를 맑게 하며, 모든 지혜를 구해 불법의 그릇을 이루었고,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으며, 보리(菩提)에 회향(廻向)해 장애가 없는 이, 그가 바로 선재동자입니다. 이제 도반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가 가는 길을 함께 갑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장엄당사라림(莊嚴幢娑羅林)입니다. 옛날부터 부처님들이 수행을 하시고 중생을 가르치던 큰 탑이 있는 곳인데 세존께서도 이곳에서 보살행을 닦으면서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한량없이 버리셨던 곳입니다. 마침 이곳에 문수사리보살이 와 계신다고 합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선재동자도 그곳에서 문수보살을 뵈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살피시던 보살은 곧 선재동자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도반의 수행과 노력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부처님의 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씀들을 들은 도반은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에게 청합니다.

“보살님, 제게 알려 주십시오.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행을 닦으며,

행에 나아가며,

행을 행하며,

행을 깨닫기 하며,

행에 들어가며,

행을 성취하며,

행을 따라가며,

행을 기억하며,

행을 더 넓히며,

보현의 행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청을 들은 문수보살이 이렇게 답합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구나. 중생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늘, 발심해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곧 일체지지(一切智智)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참 선지식을 찾아야 한단다.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만족한 마음을 내지 말며, 선지식의 가르침에는 그대로 순종하거라. 여기에서 남쪽으로 가면 승낙(勝樂)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묘봉산(妙峰山)에 가면 덕운(德雲) 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아라.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덕운 비구가 그대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선재동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앞드려 절하고 무수히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말없이 우러러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다음 여행지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재동자는 남쪽으로 떠납니다. 우리도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을까?’

(이 글은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선재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6. 불일암 구석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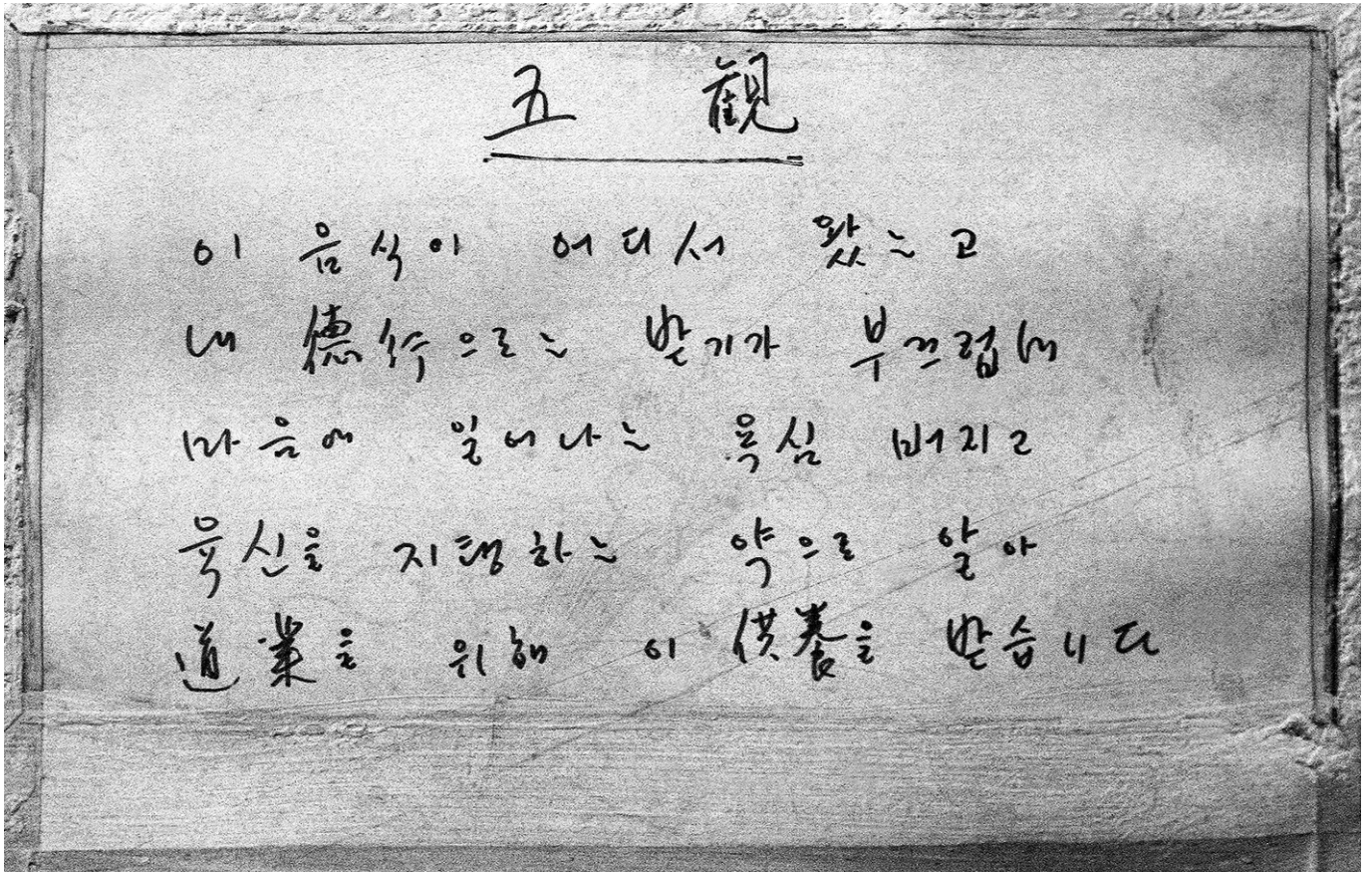


사진 덕조

불일암 아래채 부엌

五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德行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道業을 위해 이 供養을 받습니다.

불일암 아래채 부엌에 스님이 써 붙여 놓은 공양 기도문입니다. 그 아래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반찬은 세 가지를 넘지 않게.
먹이는 간단명료하게

그러고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개인적인 소원은 보다 더 단순하고 보다 더 간소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은 침묵의 세계다. 텅 빈 공의 세계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2월에 함께할 이해인 수녀의 시는 <작은 노래>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막막함을 살면서, 배우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자람을 기록한 작은
명품입니다.

작은 노래

하나의 태양이
이 넓은 세상을
골고루 비춘다는 사실을
처음인 듯 발견한
어느 날 아침의 기쁨

꽃의 죽음으로 키워 낸
한 알의 사과를
고마운 마음도 없이
무심히 먹어 버린
조그만 슬픔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어도
그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그저 눈물로 바라보기만 하는
막막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 주세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가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 제안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전자우편(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 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향기소리'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봉사자 모집

모자 뜨기 캠페인은 국제구호개발NGO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신생아 살리기를 위해 하는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참여자가 직접 모자를 떠서 완성품을 세이브 더 칠드런에 보내면 이 모자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전달하는 봉사 활동입니다. 중앙 모임은 국제 구호 활동으로 신생아 모자 뜨기 모임(모임명: 향기소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국제 구호 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법정 스님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저서는 <무소유>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텃 빈 충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맑고 향기롭게> <인도기행> <진리의 말씀> <숫타니파타> <달이 일천 강에 비치리> <말과 침묵> 총 17권입니다.

저서를 읽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기존 후원 회원께서 홈페이지 재가입시 후원금이 중복으로 인출되지 않도록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전자책을 통해 회원 저마다의 삶에 맑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의 앱(APP)으로 법정 스님의 전자책, 법문, 모임 활동 소식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앱(APP) 설치 방법 : 모바일(스마트폰)→구글 play스토어→맑고 향기롭게 검색→다운로드 설치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하는 조리 활동을 하지 못해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 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생태 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봄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니 뜻을 함께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 급식 지원 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참여해 주세요.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의류 재활용 봉사 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 중입니다.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봉사 활동 홀로 어르신 밀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 조리 활동 (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

결, 출발/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모임 시민서로배우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지원 사업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정기 봉사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봉사 활동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모임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후원 활동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정기 봉사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봉사 활동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모임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진행

후원 활동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일시 : 2월 1일(월) 오전 9시 50분~2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입춘방은 2월 3일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일시 : 2월 6일(토) 오후 6시~8시30분, 장소 : 극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설 합동 차례 일시 : 2월 12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접수번호 1~600), 설법전(접수번호 601부터), 설 합동차례 설판 접수 받습니다.(설판 동참자 "주지스님의 특별축원")

정초 기도 일시 : 2월 14일(일)~2월 20일(토) 오전 9시 50분, 금강역 동송 정초 칠일 기도 : 오후 2시, 장소 : 극락전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2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27일(토) 오전 9시 50분, 장소 : 극락전

부처님오신날 연등 공양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극락전(법당)연등		도량(마당)연등	
가족등	10만원	가족등	3만원
영가등	10만원	영가등	3만원

2월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2월 1일(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2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2월 6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설 합동 차례	2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설법전
정초기도	2월 14일(일) ~20일(토)	오전 9시 50분 / 오후 2시	극락전
보름기도	2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회향	2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2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일요 가족 법회, 청년회 법회, 중·고등 법회, 어린이 법회, 새신도 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길상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